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이사 45,8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 2사무 7,1-5.8ㄷ-12.14ㄱ.16

화답송 | 시편 89(88),2-3.4-5.27과 29(◎ 2ㄱ 참조)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
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
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나는 내가 뽑은 이와 계약을 맺고,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였노
라. “영원토록 네 후손을 굳건히 하고, 대대로 이어 갈 네 왕좌를
세우노라.” ◎

○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
의 바위.” 영원토록 그에게 내 자애를 베풀리니, 그와 맺은 내 계
약 변함이 없으리라. ◎

제2독서 | 로마 16,25-27

복음환호송 | 루카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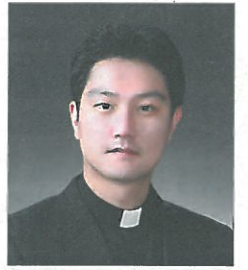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
기를 바랍니다. ◎

복음 | 루카 1,26-38

영성체송 |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라 하리라.



황중호 베드로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참된 기쁨

코로나19로 어떤 만남도 쉽지 않았던 올해입니다. 그래서 가끔 외롭고 지칠 때 옛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너와 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긴 기쁨과 슬픔이 어둔 밤하늘을 수놓는 은하수처럼 쏟아집니다. 우리 삶의 궤적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들뜬 마음에 뛰어온 발자국도, 깊이 패인 그래서 한참을 머물렀을 고통의 웅덩이도 있겠죠. 분명한 건 그 굽이굽이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대림 시기의 끝자락인 오늘, 세상 속의 순례자인 우리는 대림 시기를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어쩌면 누군가에겐 대림 시기가 길게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그저 그런 별 의미 없는 날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은 손살같이 빠르게 가고, 불편한 시간은 지루하게 늘어지기 마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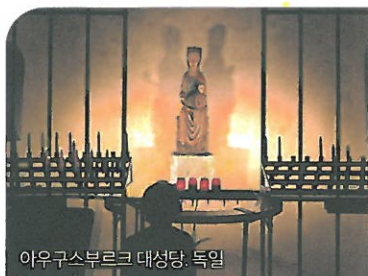
오늘 1독서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리는데, 다윗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2사무 7.16) 이 약속을 이스라엘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어 모든 어려움을 끝내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로 이끌어주실 거라고 희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바빌론 유배도 버틸 수 있었고, 로마의 혹독한 식민지배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의로웠던 요셉과 혼인한 성모님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천사의 인사말에 몹시 놀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십니다. 천사는 이스라엘의 오랜 기다림이 곧 이루어진다는 기쁜 소식을 성모님께 알려줍니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루카 1.31)

오늘날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소비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쾌락과 유혹이 사나운 이리떼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이 때론 고되고 험난해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아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 위에서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느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그래서 감춰진 신비를 발견하고 깨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 말씀은 우리 삶을 꿰뚫어 넘치는 은총으로 충만케 할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아우구스부르크 대성당, 독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루카 1,30-31)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하여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로 선택됩니다. 성모님의 순명, 일치와 헌신의 삶을 따라 하느님의 뜻에 따르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길이 아닐까요?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호수천신과 수호천사



유승자 데레사 | AFI(국제 가톨릭 형제회)

문_ “천주 무슨 임무를 천신들에게 맡기시느뇨?”

답_ “천주 여러 가지 임무를 천신들에게 맡기시는 중 특별히 사람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기시느니, 각 사람에게 날 때부터 호수천신 하나씩 정하여 주시느니라.”

문_ “각 사람이 호수천신께 할 본분은 무엇이뇨?”

답_ “각 사람이 호수천신께 할 본분은 그를 경애하며 그 도움을 구하며, 또한 그 잠잠히 타이름을 잘 들음이니라.”

위에 쓴 문과 답은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 들어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뜻도 모르고 달달 외웠던 천주교요리문답(天主敎要理問答) 조목 중 30-31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릴 때 외운 것이라 지금도 가끔 옛말인 ‘호수천신’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젊은이가 많아서 ‘호수천사’라고 고쳐서 말하면 “아~ 수호천사요.” 하며 웃고는 합니다.

얼마 전, 안동교구의 전 교구장이신 두봉 주교님께서 제가 사는 합정동 AFI 본부에 오셔서 미사를 집전해주셨습니다. 주교님께서 수호천사에 대한 강론을 하시면서 “여러분 중에 수호천사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저는 마치 기적 같은 체험을 했던 저의 경험을 신앙고백하듯 말씀드렸습니다.

당진 대전 간 고속도로, 서공주에서 유구 쪽으로 4~5Km 거리에 저의 고향으로 가는 마곡사HC가 나옵니다. 당시 저는 혼자서 모닝이라는 차를 타고 귀향 중이었습니다. 마곡사HC 전방 2Km쯤에서 출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차선에서 짐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는데, 출구가 1Km도 남지 않은 지점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나가야겠다는 마음의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1차선으로 이동하는 바로 그 순간, 대형 트럭의 커버가 열리면서 철길을 놓는 커다란 나무토막 한 개가 고속도로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수호천사의 보호하심을 감동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언제 어디를 가든지 수호천사가 늘 저를 보호해주신다고 생각하며, 특히 밤길이나 무서울 때 수호천사께 보호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곤 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천사의 존재를 등한시하며 수호천사를 잊다시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을 한 후부터 저는 삶의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처가 저의 능력이나 지혜로움 덕분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 수호천사의 보호하심이었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로
나들이보는
성경구절



거미가 있어라

바른교 13.37

오정현 라파엘라 | 명동대성당

요한 묵시록 바로 알기 ②

요한 묵시록의 줄거리 및 핵심 메시지

1-3장	서론
4-5장	천상세계가 펼쳐지면서 하느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양의 모습으로 나타나 봉인된 일곱 두루마리를 펼치십니다.
6-7장	봉인이 하나씩 풀리면서 하느님이 세상의 참된 임금인데 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박해를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두루마리로부터 나옵니다.
8-9장	물음이 제기되자 천사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 일곱 나팔을 불고, 나팔이 울려 퍼지자 우상숭배를 한 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징벌이 내려지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0-12장	우상숭배를 한 이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우상 숭배의 어둠 너머에 있는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장	용은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 바다짐승에게 자기 권한을 물려주고, 바다짐승은 자신이 세상의 임금인 양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바다짐승 옆에 있는 땅의 짐승은 사람들이 바다짐승을 숭배하도록 유도합니다.
14-15장	용, 바다짐승, 땅의 짐승 및 이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어린양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16장	하느님께서 사람들이 바다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천사들을 통해 땅에 일곱 대접을 차례대로 부으십니다.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회개의 징벌이 내려지지만 이번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다짐승은 용과 땅의 짐승과 세상의 권력자들을 불러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17-18장	바다짐승은 전쟁에 나가기 전 자신의 제국도시인 대탕녀 바빌론을 불에 태워버린 뒤 세력을 확장합니다.
19장	최후 전쟁에서 바다짐승과 그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20장	용은 천 년 동안 결박되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와 대적하려고 하여 그 결과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21-22장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됩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요한 묵시록은 하느님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과 끝까지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은 악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바다짐승은 용을 대신해서 세상에서 활동하는 악의 세력을, 땅 짐승은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짐승에게 봉사하도록 하는 세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한 묵시록이 95년경에 작성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바다짐승은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황제 권력을 의미하고, 땅의 짐승은 로마의 세력에 편승했던 소아시아

연맹과 거짓 예언자들을 의미합니다.

환시를 통해 바라본 사실을 전하는 묵시문학의 특징 때문에 여러 상징적인 요소들이 등장해서 얼핏 보기에 이해하기 힘들게 느껴지지만, 요한 묵시록은 단순히 먼 훗날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신비로운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며 우상숭배(황제숭배)를 강요하던 로마의 탄압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그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사목국 기획연구팀

염수정 추기경 인류복음화성 위원 직무 연장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이 80세까지 인류복음화성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12월 25일(금)은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성대하게 기리고자 구유 경배와 함께 밤, 새벽, 낮 세 번의 미사를 봉헌합니다. 밤 미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전하는 복음을, 새벽 미사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음을, 낮 미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전하는 복음을 봉독합니다. ‘성탄 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주님 세례 축일까지입니다.

12월 27일(일)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며 이날부터 ‘가정 성화 주간(12월 27일~2021년 1월 2일)’이 시작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한성호 신부	당산동 본당 주임	휴양
정영진 신부	교구 사무처장	겸) 당산동 본당 주임서리

가톨릭평화방송 TV·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성탄 미사 생중계

명동대성당 밤미사	12월24일(목) 23시45분	TV
	12월24일(목) 24시	라디오
명동대성당 낮미사	12월25일(금) 12시	TV·라디오
바티칸 성탄 밤미사	12월25일(금) 5시20분	TV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7년 12월 27일 정치윤 이냐시오 신부(59세)
- 2011년 12월 22일 용동진 바오로 신부(56세)
- 2011년 12월 26일 이계광 세례자 요한 신부(90세)
- 2014년 12월 21일 박노현 요한크리소스토모 신부(67세)

가톨릭 교리상식

서울주보에 물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 QR 스캔 ▲

참여기간 11월 28일(토)~12월 31일(목)
 참여방법 서울주보 홈페이지(cc.catholic.or.kr) 접속
 -> 홈페이지 하단 이벤트

교구정리령

소방사목 선교봉사자 모집

내용: 교육과정 수료 후 파견
 대상: 견진받은 60세 이하의 교우
 문의: 02)727-2078, 010-4799-2078 직장사목팀

가톨릭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2021 새해특강: 현대미술에서 종교를 만나다’

가톨릭예술아카데미에서는 종교와 현대미술의 만남을 주제로 새해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문의: 02)751-4107, 4110 홍보위원회
 대상: 20대 이상 천주교 신자 및 일반인(신청순 300명)
 회비: 4만원(4주 일괄신청) / 신청: 온라인 신청(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때: 2021년 1월6일~27일 매주(수) 19시30분~21시
 곳: 줌(Zoom) 어플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강좌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참조

1월6일	빛을 따라 프로방스로 내려간 화가들 '샤갈과 마티스를 중심으로'	강정모 (안드레아트레블 대표)
1월13일	초월을 향하여 '조각가 김종영'	빅문화진흥원미술관 학예실과
1월20일	현대미술의 풍경 '동시대의 미술'	김찬용(전시해설가)
1월27일	추상미술이 된 성서 칸딘스키, 뉴먼, 로스코'	허영유 수녀 (성심수녀회 수녀)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신년 하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2021년 1월7일(목) 오후 2시~3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송영호 국장신부, 김윤상 차장신부(해외선교봉사국)

2021년도 총구역장 연수

대상: 남성총구역장, 여성총구역장
 때: 2021년 1월2일(토) 14시~15시30분
 곳: 주교좌 명동대성당 / 회비 없음(12월29일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양성교육(2021-1차 교육생 모집)

대상: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에 관심 있는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
 교육기간: 2021년 2월3일~6월30일 매주(수) / 20주 과정
 교육장소: 가톨릭회관(명동) / 회비: 10만원
 신청기한: 2021년 1월29일(금)까지
 문의(접수): 02)742-9471, 3 경찰사목위원회 교육센터
 경찰사목 선교사 활동 및 교육과정은 홈페이지 (www.catholicpolice.or.kr) 참조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크리스마스 선물전: 1전시실
 윤영선 '공소애 스미다': 2, 3전시실
 전시일정: 12월23일(수)~28일(월)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4 성북지구(노동사목회관), 5지구(노원성당), 9지구(천호동성당), 13지구(삼성산성당), 17지구(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 / (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 / (월~금)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인준단체 알림

모임

송년 피정

대상: 성소를 찾는 35세 미만 여성
 때: 12월31일 19시~2021년 1월1일 13시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본원(서울)
 회비: 1만원 / 문의(접수): 010-9816-0072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한라산눈꽃피정: 2021년 1월8일~10일, 1월23일~25일, 1월29일~31일, 2월5일~7일, 2월20일~23일, 2월27일~3월1일 /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5차 2021년 1월22일(금)~30일(토) / 문의: 061)373-3001,
 제86차 2021년 2월5일(금)~13일(토) / 010-3540-9001

교육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원)
 블로그: pc21s.blog.me / 문의: 010-5313-6554(문자)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성음악클래식기타주법 특강

때: 2021년 1월16일·23일·30일 10시~16시(3회)
 회비: 15만원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사서함 5234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cdcc.co.kr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히랍어)

때, 곳: 1월~12월 19시~21시(주1회 2시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2021년 1월 개강·6주 과정)
 안전한 강의 환경을 위해 수강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한 사랑 체험과 우리의 상처	(목) 14시~16시	손우배 신부
사랑의 법, 영혼의 법 -하느님의 사랑, 성사	(금) 14시~16시	이훈 신부
비오로 서간 과정(제2차 서간)	(금) 14시~16시	임숙희 박사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 접수: 2021년 1월19일(화)까지
 문의: 02)747-8501(ci.catholic.ac.kr)

교리교육 학과	(월~금) 주간(2년)	세례 3년 이상 걸진자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종교교육 학과	(월~금) 야간(2년)	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 과정	(화~목) 주간(1년)	교리·종교학과 졸업생, 본원 통신과정 졸업생, 만 70세 미만, 고졸 이상

원데이 목주 만들기 체험(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2021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 문의: 02)745-8339
 원서접수: 2021년 2월10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가르멜센터(가르멜수도회)

랜선으로 만나는 가르멜 강의
 매주(목) 가르멜영성문화센터 유튜브 채널 '가르멜
 트랙' / 유튜브 '가르멜영성문화센터' 검색 후 구독
 문의: 02)6951-1101, 010-4149-1853(carmelcenter.kr)

복음화학교 142기 온라인 개강

복음화학교 142기 1단계 온라인 유튜브 수업(비
 공개)에 초대합니다 / 문의(수강신청):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복음화학교 교육국
 때: 2021년 1월11일(월) 14시·1월14일(목) 19시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때: 2021년 2월~12월(2월 예비학교 예정)
 대상: 15세 이상 남자 / 취업(최근 5년 평균취업률 89.2%)
 혜택: 교육비·기숙사 무료, 수강 지급 / 문의: 02)828-3600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
 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2021학년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정시 모집

모집기간: 2021년 1월7일(목)~11일(월)
 의과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의료융합대학, 항공
 대학,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예술대학, 관광스포츠대학
 2022학년도 가톨릭지도사추천전형: 의학과, 간호학
 과 모집 / 문의: 033)649-7000

2021학년도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 오르간, 작곡(CCM 작곡), 합창지휘전공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2021년 1월4일(월)~15일(금) / 전형일: 1월29일
 (금),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883(http://songsin.catholic.ac.kr/music)

모집

도미니칸 평신도회 회원 모집(재속회)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만 60세 이하의 성인 남녀
 문의: 010-9720-7015 성소 담당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12월23일(수) 오전 11시 예정이던 신우회 미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었습니다 / 문의: 02)727-2056

2021년 1월 가정선교회 행사

문의: 010-2367-2297, 010-6281-8626, 02)777-1773 대표

첫 토 성모 신심미사	1월2일 14시~16시30분, 가톨릭 회관 3층 강당 / 회비 없음	한철호 신부
성기정 영성 1일 피정	1월6일 9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없음, 김밥 판매, 식수 준비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인사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대인기피·강박) 종합심리검사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민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회수녀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중
 합심리검사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운영: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서울시 위탁)
 회비: 언어상담 20회 10만원, 매체상담 20회 60만
 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 / 문의: 02)2051-3743
 카카오톡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상담팀'
 검색 후 채널 추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문의 바랍니다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in.com) 토요상담 가능

심층적 자기이해와 가족관계 성장	2021년 1월19일~3월23일 매주(화) 오전 10시~12시(10주)
가족심리치료	가족부부·자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관계문제 등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동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권순기 회장
 때, 곳: 12월29일(화) 14시, 서울대교구 양천(지)성당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미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명동) 501호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격과정: 2021
 년 1월11일~2월8일(월) 10시~16시(5회, 선착순 6명)

직원모집

삼성동성당 미화원 모집 / 문의: 02)512-0195

분야: 계약직 1명(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
 부님 확인서(교적 본당 사무실 발급)
 사무실 방문·우편(우 06096,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12길 68)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통보)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시설관리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도시가스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2급, 운전면허자격증 소지자 / 분야: 시설관리(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
 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2021년 1월5일(화)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매월 넷째주(토) 15시~(일) 13시	서울 분원(장충동)	010-8353-2323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939-7970
한국외방선교회	2021년 1월3일(일) 11시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사랑과 생명의 나눔을 이웃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 1988년故 김수환 추기경님에 의해 설립되어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톨릭재단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0-2021 연말연시 모금캠페인

가나 희망 교실 프로젝트

아피야, 학교 가자

학교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아이, 아피야 친구들과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이번 연말연시를 맞아 아프리카 가나의 작은 마을 카나수아 지역 삼위일체(Holy Trinity) 학교 아이들에게 교실과 영양 급식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카나수아 마을은 수도 아크라에서 약 4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시골마을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이들은 좋은 교육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곳 아이들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가나 성령선교수녀회에서 삼위일체(holy Trinity) 학교를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실과 영양급식을 지원하는 이번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 본 캠페인은 20년 12월 01일부터 21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모금된 금액은 340명의 아이들에게 든든한 영양식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실 2개 동을 추가 건축하는 활동에 지원됩니다.



가나 희망 교실 프로젝트 후원하기

모금기간 2020.12.01. ~ 2021.01.31.

계좌안내 우리은행 1005-684-07777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입금자명 앞에 '가나'를 붙여주세요.(ex. 가나홍길동)

문의 02.774.3488 입금 후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 소득공제용 납부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나 희망 교실 프로젝트 후원금 초과 달성시 초과된 후원금은 본부의 '지구촌 빈곤 퇴치' 사업에 지원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obos.or.kr> 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나 희망 교실 프로젝트 응원하기

기간 2020.12.01 ~ 2021.01.31.

참여 가나 희망 교실 프로젝트 응원 메시지 또는

그림 작성 후 본인의 SNS 에 인증샷과 함께 아래 해시태그(#)를 남겨주세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가나희망교실프로젝트

#당신은아름다운사람입니다 #가나희망지킴이

#아피야응원해(자유로운 응원 메시지)

*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들께는 마스크 목걸이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최유진 마리스텔라

올 초부터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놓았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뒤바뀐 일상은 프리랜서인 나에게 불안과 우울함의 연속을 안겨주었고 유튜브로 드리는 미사가 익숙해지던 즈음 친구에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채널을 추천받게 되었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생명존중·나눔 실천은 신부님들의 유쾌한 설명과 대화들로 친근하게 다가왔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을 때 "노숙인 간식 나눔"과 "명동밥집" 봉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설레었다. 불안정한 일상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재감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던 이 시점에 꼭 필요하게 느껴졌다. 봉사자 지원은 나도 어딘가에 쓰임 받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삶의 지향과 맞닿았기에 용기가 생겼던 것 같다.

첫 봉사 당일에는 설렘보다 걱정의 감정이 더 컸다. 마음을 다 잡기 위해 묵주기도를 바쳤다.

'주님, 처음의 그 마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봉사는 총 3코스로 시작 전 유의사항을 듣고 각 조마다 통솔해주는 신부님들과 봉사자들이 한 팀이 되어 함께 다닌다. 을지로부터 시청까지 A코스, 종각부터 탑골 공원, 낙원·세운상가주변을 따라 돌아오는 B코스, 그리고 남대문 기점인 C코스로 나뉘는데, 봉사 주마다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 그날의 느낌이 다르게 와닿았다.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남대문 지하도는 늦은 저녁이 되면 노숙인들이 잠을 청하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한다고 한다. 텐트부터 종이박스 집, 혹은 신문지 몇 장에 의존한 채 차가운 바닥에 누워계신 모습들이 지하도에 들어서서 본 첫 광경이었다. 순간 두려웠던 마음은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재빠르게 뛰어가서 간식을 전해드렸고 짧은 인사말조차 제대로 건네드리지 못한 채 그렇게 첫 봉사가 30분 만에 끝나버렸다.

봉사가 끝나면 본부로 돌아와 각 조마다 각자의 느낀 점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짧은 나눔을 하는데, 그날 뛰어가던 나의 모습을 본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요? 다음 봉사 때에는 눈을

마주치며 말 한마디 건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 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위로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이 크다는 것, 그날 신부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지금까지 봉사에 임했던 것 같다. 몇 번 다니다 보니 늘 항상 같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보이지 않으면 걱정도 되고 이제는 먼저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생겼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봉사 시작 전 나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고, 최근에 드린 미사에서 한 복음 말씀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에게 있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나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그분들에게 베풀었던 이 마음은 무엇일까. 진실 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대화를 하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게 되었다. "너 자신을 네 이웃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고 보니 그동안 힘들게 느껴졌던 나를 사랑하는 일이 조금은 쉽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 스스로를 칭찬하고 위로받는 시간을 갖곤 한다. 마음을 나누어드리려 했던 이번 봉사에서 오히려 나는 그분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 같다.

봉사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본부 신부님들, 직원분들, 봉사자님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신 노숙인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곧 완공될 "명동밥집"에서 모두가 함께 좋은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과 그분들이 오시는 명동성당의 길이 밝은 빛과 따뜻한 시선들로 가득 차길 기도한다.

명동밥집

무료급식소 명동밥집 후원하기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 문의

02)774-3488

※ 후원금 및 물품 후원도 가능합니다.



산타가 되어주세요

노숙인을 위한 사랑의 백팩(배낭) 선물하기

명동밥집이 노숙인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춥고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밥 한 끼로 배고픔의 해결과 함께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백팩'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산타가 되어 사랑의 백팩을 선물해 주세요.

아래 참여방법 중 가능한 나눔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㉟ 하나. 사랑의 키트를 후원해 주세요

사랑의 백팩에는 노숙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키트가 담겨집니다.

※ 키트 구성품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속옷 1세트
(기능성 발열내의)
- 
 장갑, 등산양말
(2족) 2종세트
- 
 구급약 키트
(밴드, 파스, 상비약)
- 
 세면도구세트
(치약, 칫솔, 타올 등)

키트를 후원하는 방법

후원금 1키트에 3만원

(1인당 여러 계좌 이상도 가능합니다.)

계좌안내 우리은행 1005-604-022962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무통장 입금시 후원자명 앞에 '사랑'을 붙여주세요

(예시: 사랑홍길동)

※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본부로 연락하여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를 꼭 알려주세요
 관련문의 02)774-3488

※ '산타가 되어주세요' 키트 구매 초과 달성시 초과된 후원금은 '명동밥집' 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㉟ 둘. 사용하지 않는 백팩(배낭)을 보내주세요

※ 20리터 이상,
 가로 26cm 이상,
 세로 45cm 이상



보내주신 백팩(배낭)에 사랑의 키트를 담아 노숙인에게 전달합니다.

캠페인 기간 2020.11.16(월) - 12.31(목)

보내실 곳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22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앞

기간 동안 모아진 사랑의 키트와 백팩은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온정이 되어 명동밥집 개소 후 노숙인들에게 선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100 한마음한몸 정기-일시 후원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마음한몸의 새로운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신청 및 문의
02)774-3488

11월의 새로운 한마음한몸 나눔 가족입니다

※ 2020. 10. 29. ~ 2020. 11. 30. 기준

(주)에이드이트컴퍼니 | (주)트리안상사 | 강궁우 바오로 | 강진지 | 강부덕 | 강서형 | 강궁구 세레나 | 강수연 안젤라 | 강수용 | 강영미 율리아나 | 강윤정 | 강윤형
다니엘 | 강인화 | 강준기 바오로 | 강준희 요셉파나 | 강태희 카타리나 | 강세실리아 | 경은진 베로니카 | 고경희 | 고동현 요셉 | 고영숙 | 고영희 세실리아 |
고정음 | 고재영 | 고태영 대건안드레아 | 공복임 | 광수경 | 광효은 마르티노 | 구경오 | 구상영 | 구성성당엘지구역 | 권경미 스테파니아 | 권모남 유스티나 |
권영국 요셉 | 권행숙 살로메 | 권혜진 가브리엘라 | 김금련 루시아 | 김가진 라헬 | 김갑수 알베르토 | 김경남 이사벨라 | 김경란 마리아막달레나 | 김경수 루카 |
김경숙 요안나프란체스카 | 김경숙 | 김경숙 마리아 | 김광조 조그리아 | 김구연 | 김귀옥 마리아 | 김기숙 안젤라 | 김기홍 아오스딩 | 김나현 카타리나 | 김대호
대건 안드레아 | 김동규 | 김동성 대건안드레아 | 김동환 | 김동욱 | 김루시 | 김명숙 수산나 | 김민희 | 김미경 마리키티 | 김미경 | 김미숙 구대군다 | 김미경 |
김민경 | 김민규 프란체스코 | 김민서 켈라 | 김민성 | 김민수 아가타 | 김민정 엘리사벳 | 김민정 아나나시야 | 김복태 아고보 | 김상배 실바노 | 김서용 마르티노 |
김성영 루시아 | 김성희 카타리나 | 김성모 아에라 | 김성순 | 김성민 | 김성철 스테파노 | 김수미 베로니카 | 김수빈 율리아나 | 김수연 | 김수진 루시아 | 김숙희
리타 | 김순환 요한 | 김수자 | 김승희 켈라 | 김시연 | 김아름 | 김애경 세실리아 | 김여진 마리아 | 김영선 | 김영미 | 김영진 안셀로 | 김용주 율리아나 | 김용택
제레사 | 김윤숙 | 김윤환 | 김은선 리디아 | 김은혜 | 김은희 베로니카 | 김아숙 아녜스 | 김재숙 율리아 | 김재현 | 김정순 데레사 | 김정영 마리아 | 김정희 안젤라 |
김정희 아녜스 | 김정희 요안나 | 김지민 라파엘라 | 김지아 도미니카 | 김진숙 마카렐 | 김진연 | 김차식 카타리나 | 김창호 | 김창환 요한보스코 | 김태근
파비아노 | 김태숙 | 김태일 내레오 | 김태영 | 김태환 미카엘 | 김평삼 아놀도 | 김학찬 | 김한중 요셉 | 김해수 | 김해숙 | 김해자 리디아 | 김현구 토마스 | 김현숙
과라 | 김현주 | 김현하 발렌티노 | 김형근 테오도 | 김형숙 | 김형순 귀암마리아 | 김혜자 수산나 | 김혜정 아녜스 | 김호성 제노바파 | 김희라 | 김희라
노엘라 | 김희선 데레사 | 김희수 로사 | 김희재 | 김희정 율리아나 | 나병삼 디오테오 | 나현영 | 남기우 다니엘 | 남승민 | 남아성 안셀모 | 남혜경 | 노마리아 |
도경우 & 강문영 & 사비나 | 도형석 펠릭스 | 디앤이앤지 & 어링주식회사 | 류동철 다니엘 | 류연자 그라시아 | 류정호 엘리사벳 | 류혜선 루치아 | 마준자 마리아 |
명지희 & 이모성 | 모상혁 사도요한 | 문금성 마리아 | 문수영 바오로 | 문숙현 | 문윤영 | 문재현 | 문지연 율리아나 | 문형민 실비아 | 민재용 사도요한 | 민지혜 |
민진재 | 민정순 루시아 | 방문선 마리아 | 방광석 마리아 | 배성민 안젤라 | 안병진 안성실 레아 | 안성희 첼리나 | 안재길 안정애 리타 | 안정림 | 이정식 마르코 | 이경희 바오로 |
이귀순 레지나 | 이귀일 막달레나 | 이근순 | 이근하 세바스티아노 | 이기향 | 이남경 마카렐 | 이남기 | 이남용 비오 | 이도훈 | 이도인 마리아고레타 | 이득희
레지나 | 이라영 로사리아 | 이명숙 아녜스 | 이명숙 | 이명진 다비드 | 이무희 | 이미자 데레사 | 이민재 에스텔 | 이민정 세라피나 | 이보령 | 이보령 | 이복경
세라피나 | 이선영 | 이성민 프란체스코 | 이세영 | 이슬 콘체사 | 이수남 | 이수연 캐롤리나 | 이수진 | 이수현 율리아나 | 이순재 요안나 | 이송재 펠릭스 |
이승은 | 이승현 | 이시연 | 이신선 | 이신선 소피아 | 이신선 소피아 | 이연재 마리아 | 이영숙 | 이영숙 | 이영숙 | 이영숙 | 이영숙 루비나 | 임은정 | 임인섭
사도요한 | 임현규 | 임현규 아녜스 | 임혜민 | 임정자 세라피나 | 장미연 | 장성복 아브라함 | 장승아 마리아 | 장영이 벨리나 | 장영재 가리노 | 장윤희 안나 |
장향란 | 장혜성 | 장희 프란체스코 | 전리나 리나 | 전영희 바울라 | 전수진 루스 | 전숙 | 전숙자 | 전영민 요셉 | 전옥순 | 전은순 카타리나 | 전재은 | 전정아 |
전지은 | 전혜나 | 정경자 엘리사벳 | 정광열 엘리사벳 | 정관재 | 정기현 요셉 | 정남희 | 정영화 스텔라스티카 | 정성우 바오로 | 정성경 마틸다 | 정선희 마리아 |
정수인 | 정수현 | 정시은 나탈리아 | 정안젤라 | 정양광 율리아 | 정연희 | 정영미 세실리아 | 정영원 | 정원태 알로시오 | 정은호 | 정지은 | 정지은 | 정지은 |
정진영 | 정진희 | 정창훈 | 정혜숙 크리스티나 | 정혜연 베로니카 | 정혜원 데레사 | 정화용 | 정희수 | 조미경 | 조성은 | 조용성 안젤로 | 조유진 | 조유민 | 조재연
도미니카 | 조정실 | 조정은 | 조종현 베드로 | 조찬민 레오 | 조항진 브루노 | 주석회사조성텍코 | 주권경 | 지수연 막시마 | 지태근 안드레아 | 진영숙 | 진인숙
아녜스 | 진철우 | 진홍수 프란체스코 | 차미정 안나 | 차윤희 | 채상경 | 채수석 F 하비에르 | 천जू고 성산2동 성당 빈첸시오 | 체사리아 | 체사리아 | 최도범 요한 |
최정자 아나나시야 | 최민준 | 최석진 | 최성주 | 최성순 | 최성진 | 최수진 안젤라 | 최순진 아가타 | 최슬기 | 최승민 | 최이원 | 최연경 | 최영수 안나 | 최영숙
소피아 | 최영우 | 최영태 요셉 | 최은보 안나 | 최은영 | 최응실 | 최정숙 임파울라타 | 최지은 | 최진아 | 최철호 | 최현 율리아나 | 최현수 | 최현주 안젤라 | 최혜경
율리아나루시아 | 최홍용 라파엘 | 최희준 | 톨리코리아 | 폴리나 | 하경희 로사 | 하서용 요한보스코 | 하승범 | 하지연 | 한동수 | 한상표 | 한용수 시몬 | 한유정 |
한정원 가브리엘라 | 한창희 | 한향심 마리아 | 한혜란 | 허진영 요셉 | 한상일 | 한윤석 | 한윤선 | 홍기현 | 홍남영 이레네 | 홍영정 | 홍서연 아녜스 | 홍순호 |
홍승숙 막달레나 | 홍신아 도미니카 | 홍연성 | 홍은숙 베로니카 | 홍은실 | 홍은정 | 홍은희 루시아 | 홍필식 | 황건영 발렌티노 | 황글라라 | 황형민 레지나 |
황보창수 | 황수현 펠리치디스 | 황영록 루카 신부 | 황용희 | 황의숙 요안나 | 황주진 글라리아 | 황희수

(총 567명)

생애첫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생애첫기부'는 생애 뜻깊은 날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으로
나눔의 기쁨을 선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상 속의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부입니다.

첫 번째 기부

김비오 | 김세은 에스테르 | 김재용 마틸다 | 도담이(태영) | 맑음이(태영) |
민숙희 세실리아 | 박서현 | 박하리 로사리아 | 배진리 릴리안 | 백인우 | 서
가은 | 손하은 | 송민준 안드레아 | 송윤아 | 양진 | 이우담 | 이우하준 | 이나원
| 이서정 | 이서하 캐서린 | 이선호 스테파노 | 이시은 | 이윤서 레나 | 이윤선
| 이준서 | 이한솔 | 전혜민 세실리아 | 정서현 | 정현성 가브리엘 | 정현우 프
란체스코 | 정현우 마카렐 | 정현준 이나시오 | 정희연 클라라 | 지연우 | 허
주아 플로라 | 홍민재

두 번째 기부

김미경 엘리사벳 | 김이든 | 박라은 | 박서은 켈라 | 박서현 율리아나 | 박재나
| 박효연 세레자요한 | 윤가은 | 이반희 다니엘 | 이윤지 | 이우안 마르티노 |
이해용 알베르토 | 장은찬 | 한지은 | 황라은 안드레아 | 황현중 프란체스코

세 번째 기부

고권 | 광운후 요한 | 김도현 엘리사벳 | 김지유 | 문유준 | 반지을 대건 안드
레아 | 양소윤 스텔라 | 유이현 | 이성우 이사벨라 | 이윤구 후베르토 | 이정
은 | 이하준 마카렐 | 정서연 베르타 | 하도율 | 허시훈 라파엘

네 번째 기부

권의담 루카 | 김나은 마리스텔라 | 김서원 라파엘 | 김아정 | 김윤하 플로라 | 박
선우 로마노 | 박승연 이나시오 | 박찬영 프란체스코 | 송이현 임파누엘 | 유라오
니콜라오 | 윤이나 | 하주원 엘리사벳 | 한여원 가브리엘 | 한어준 세레자요한

다섯 번째 기부

김아현 엘리사벳 | 김예은 마카렐 | 김주원 니콜라오 | 김지은 루이제 | 김하은
그라시아 | 남연우 | 류연서 | 민재현 | 박승현 스텔라 | 박신우 바르톨로메 | 박
은우 안셀모 | 신재용 가브리엘 | 심설 | 양서린 에스텔 | 오연우 | 장도원 켈라

여섯 번째 기부

김아윤 마르첼리나 | 백지호 스텔라 | 류현우 | 송이재 테오도로 | 심소은
라 | 이기영 요한보스코 | 이다빈 | 품포사 | 양서준 레오 | 이다니엘 |
이우림 마리아 | 이현아 발렌티노

일곱 번째 기부

류현우 | 송이재 테오도로 | 심소은
품포사 | 양서준 레오 | 이다니엘 |
임요섭 요셉 | 장윤 베드로

여덟 번째 기부

신재하 마카렐 | 심음 | 이정민 세실
리아 | 이종민 세라피노

아홉 번째 기부

윤나리 가브리엘라 | 이세인 사무
엘 | 김지훈

열 번째 기부

이혜인 프란체스카

열한 번째 기부

김보민 보나

열두 번째 기부

이준수 사도요한 | 심세형 안드레아

열셋 번째 기부

심우형 다니엘

열넷 번째 기부

이준수 사도요한 | 심세형 안드레아

열다섯 번째 기부

김보민 보나

열여섯 번째 기부

김우상 안토니오 & 강영지 데레사 결혼17주년 | 도경우 & 강문영 스텔라
사비나 결혼10주년 | 신동원 프란체스코 하비에르 & 윤재은 요안나 결혼4
주년 | 윤연호 아가토 & 이윤주 데보라 만난지 2주년 | 윤정기 안토니오 &
송서연 루시아 결혼16주년 | 이수민 레오 & 김성희 루시아 결혼14주년 | 이
슬기 아우구스티노 & 김상우 마리아 결혼13주년 | 이재성 & 이아람 에스텔
결혼9주년 | 이주원 요한 & 이승은 엘리사벳 결혼10주년 | 이홍민 대건 안
드레아 & 이정은 율리아나 결혼3주년 | 조창배 바오로 & 이주경 바울라 결
혼18주년 | 차규상 요셉 & 고애림 마리아 결혼8주년 | 천재영 스테파노 &
전은선 헬레나 결혼3주년 | 최영현 알베르토 & 김진경 실비아 결혼11주년 |
홍송기 다니엘 & 윤소현 마르카리타 결혼2주년

고인을 기억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부

故 이태상 요셉 | 故 송승선 베드로 | 故 이연희 데레사 | 故 최효환 누수

감사 기부

가재원 아델라 | 고도원 바오로 승진 | 김태민 건강관 공생활 | 김태현 첫 월
급 | 스윗소로우 싱글발매 | 윤연진 베로니카 | 이재민 요안나 | 이지환 필립
보 건강회복 | 임명희 이레나 | 태하규 마카렐

※ 2020. 10. 28. ~ 2020. 12. 1. 기준 (총 164명)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은 나눔가게-기업 신청서 안내자료를 보내드리고, 1년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시면 예쁘게 디자인된 나눔현판을 보내드립니다.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99

Table with 4 columns: Item Name, Address, Phone Number, and Description. Includes items like '서울 강남 테헤란로 리파인드902', '경기 시흥 신전역북미 배곧점', etc.

Advertisement for 'Oboosga Ganda!!' (오보스가 간다!!) featuring a QR code and text about supporting the One Heart, One Body Movement through donations and volunteer work.